

국제기구
보고서 요약

2012 No.3

OECD Economic Outlook May 2012



kipf

● 목 차 ●

1. 거시경제 전망 및 평가	1
2. 국가별 경제·재정 전망	11
1) 미국	11
2) 일본	12
3) 유로지역	13
4) 독일	14
5) 프랑스	15
6) 이탈리아	16
7) 영국	17
8) 캐나다	18
9) 호주	19
10) 오스트리아	20
11) 벨기에	21
12) 칠레	22
13) 체코	23
14) 덴마크	24
15) 에스토니아	25
16) 핀란드	26
17) 그리스	27
18) 헝가리	28
19) 아이슬란드	29
20) 아일랜드	30
21) 이스라엘	31
22) 한국	32
23) 룩셈부르크	33
24) 멕시코	34
25) 네덜란드	35
26) 뉴질랜드	36
27) 노르웨이	37
28) 폴란드	38
29) 포르투갈	39
30) 슬로바키아	40
31) 슬로베니아	41
32) 스페인	42
33) 스웨덴	43
34) 스위스	44
35) 터키	45
36) 브라질	46
37) 중국	47
38) 인도	48
39) 인도네시아	49
40) 러시아	50
41) 남아프리카공화국	51
3. 글로벌 성장 및 불균형에 대한 중장기 시나리오	52

1. 거시경제 전망 및 평가

- 세계경제는 유로지역의 정책대응을 통한 하방리스크 완화로 6개월 전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유로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
 -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2년 3.4%, 2013년 4.2%로 전망
 - OECD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1.6%로 2011년에 비해 다소 침체되었으나, 2013년에는 2.2%까지 완만한 회복세로 전환
 - 경기양상은 지역 및 국가에 따라 상이
 - 상대적으로 유로지역보다 미국과 일본이 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대부분의 개도국은 점진적 경기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재정 및 금융위기의 여파와 시장압력으로 인한 재정악화 가능성 등 유로지역은 2012년 마이너스 성장(-0.1%)이 예상됨

<표 1> 세계 경제 전망

	평균						2011	2012	2013
	1999-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Q4 / Q4		
	%								
실질 GDP 성장률	2.4	-3.8	3.2	1.8	1.6	2.2	1.4	1.8	2.4
미국	2.5	-3.5	3.0	1.7	2.4	2.6	1.6	2.4	2.7
유로 지역	2.1	-4.4	1.9	1.5	-0.1	0.9	0.7	0.2	1.3
일본	1.1	-5.5	4.5	-0.7	2.0	1.5	-0.6	1.9	1.6
Output gap ¹	1.4	-4.1	-2.6	-2.5	-2.8	-2.6			
실업률	6.4	8.2	8.3	8.0	8.0	7.9	7.9	8.0	7.7
인플레이션	2.7	0.5	1.9	2.5	2.2	1.9	2.7	2.1	1.9
재정수지 ²	-2.1	-8.1	-7.5	-6.3	-5.3	-4.2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	6.7	-10.7	12.8	6.0	4.1	7.0	3.4	5.7	7.5
세계 실질 GDP 성장률	3.8	-1.2	5.1	3.6	3.4	4.2	3.1	3.8	4.4

1. 잠재 GDP %

2. GDP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Table 1.1

※ 경제전망의 기본가정 ※

- 정책결정이 유로지역의 불안정성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
- 유가변동에 악영향을 주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음
- 과도하고 급격한 재정긴축을 추진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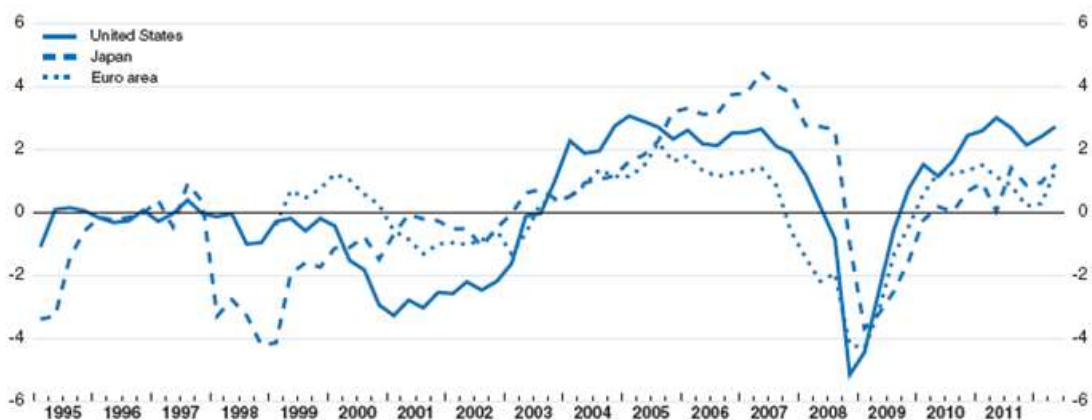
■ 유로지역을 제외하고, OECD 국가들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수요와 공급이 회복되면서 2012년 5월 현재 거시경제 상황은 대체로 긍정적인

○ (금융시장) 2012년 유로지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금융상황지수(Financial Conditions Indices: FCIs)*가 상승하여 완만한 경제성장을 견인

* 지수 1단위 증가는 4~6 분기 후의 GDP가 약 0.5~1%p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

- 미국, 독일, 일본, 영국의 국채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영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중장기 국채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음
- 유로지역의 경우 금융권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으로 금융시장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그리스 선거 이후 시장교란과 국가부채, 은행권 부실에 대한 우려 증가
- 2012년 1사분기 국채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그리스를 필두로 스페인 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는 재상승 중

[그림 1] OECD 금융상황지수(FCIs) 변화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Figure 1.1

- (경제상황) 여전히 경기회복 속도는 느리고 취약성이 존재하지만, 수요 및 공급 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등 세계경제는 완만하게 회복 중
 - [체감경기] OECD 주요국과 비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체감경기(business sentiment)와 주문량(order book)이 6개월 전에 비해 모두 상승세로 전환되며 안정되는 상황
 - [세계무역] 세계공급망(global supply chain) 회복으로 2012년 초반에 무역량 증가
 - [기업투자] 기업수익성 및 건전성이 회복되면서 느린 속도지만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회복
 - [자동차판매] 중국의 자동차판매량이 급증하고, 자동차 구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화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판매량 증가
 - [가계부채] OECD 국가의 가계저축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지속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필요성으로 총민간소비 성장은 상당히 억제되고 있음
 - [주택경기] 미국의 주택시장은 미분양률이 감소하는 등 안정화되고 있으며, 독일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남유럽국가의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의 양상은 복합적으로 나타남
 - [유가] 2012년 초 유가는 공급문제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최근 다소 진정세를 보였으나 향후 2년간 강세를 이어갈 전망

- 하방위험 상승요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단기(near-term)적으로 세계경제는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경제성장) 전반적으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주요 개도국의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긴축을 추진하면서 성장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
 - [미국] 노동시장 개선과 기업투자 회복으로 점진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나, 재정긴축과 장기적인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회복속도가 억제될 가능성이 있음
 - 실업률은 2013년 말까지 7.5% 이하로 감소할 전망
 - [유로지역] 국가채무 및 금융부문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 정책대응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순수출 호조가 수반된다면 2012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 가능
 - 다만 실업률 상승(11% 이상) 등으로 유로지역 전체의 성장은 2013년 세계 성장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

- 독일의 경우 내수회복과 실업률 감소, 저금리 유지 등으로 유로지역의 채무국들에 비해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등 유로지역 내 국가별 격차는 확대
- [일본] 재해복구 지출로 수요가 진작되면서 2012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에는 기업투자 확대와 수출 증대를 통해 회복세를 이어나갈 전망
- [개도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이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2013년 중국과 인도의 성장률은 각각 9~9.25%, 7.5%로 전망
 - 순수출 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브라질, 러시아의 성장률은 연평균 4.25%로 전망
- (인플레이션) 물가지수(headline inflation)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으로 미국과 유로지역에서는 느린 속도로 감소
- (노동시장) 미국 등 비유럽 국가들의 고용개선으로 유럽의 고용악화를 상쇄하면서 OECD 국가 전체의 실업률은 2013년까지 2011년 수준을 유지
 - 경제활동과 실업률 전망은 미국과 유럽 모두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 긴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구조적 개혁정책을 통해 고용악화와 경기적 실업의 고착화를 방지해야 함

<표 2> 실업률 추이 및 전망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미국	5.8	9.3	9.6	8.9	8.1	7.6
유로지역	7.4	9.4	9.9	10.0	10.8	11.1
일본	4.0	5.1	5.1	4.6	4.5	4.4
OECD	6.0	8.2	8.3	8.0	8.0	7.9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Table 1.4

- (세계무역) 경제성장률 회복에 따라 세계 무역증가율이 2013년 후반에 7.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적 불균형은 확대
 - 산유국의 무역 흑자(external surplus)가 증가하고, 일본과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current account surplus)가 감소하는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 재정조정과 함께 상당한 실질환율 조정이 요구됨
- (하방위험) 유로지역의 채무위기가 재차 악화되면 하방위험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석유공급 악화와 과도한 재정긴축 등 다수의 위험요소가 존재
 - 미국의 경우 2013년 GDP 대비 4% 규모의 과도한 재정긴축이 현실화되면 경제성장률은 전망보다 1.25~1.75%p 이상 하락
 - 유럽대륙 국가들의 민간부문 디레버리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투자위축 및 신용공급 축소로 성장에 악영향 발생
 - 협약 파기 등 부정적인 정책변동 가능성, 금융국제화에 따른 위험자산 증가, 중국의 성장부진, 수요회복 지연(pent-up demand pressure), 개도국에 대한 투자과열 등의 위험 요소도 존재함
- 유로지역의 신속한 정책대응은 경제적 불균형 해소의 단초를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유로지역 위기가 세계경제의 주요 하방위험 요소로 존재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위기의 근본원인은 경제적, 재정적, 금융적 불균형에서 초래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친화적 환경조성과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
 - 유로지역 경제는 수출의존성 성장, 내수침체, 빈곤국가에 대한 투기성 잉여자본 투입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 임금 상승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감소하고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짐
 - 균형회복을 위해 채무국은 국내지출(domestic absorption) 변화를 통한 지출감축과 실질환율 감가상각을 통한 지출전환(expenditure-switching),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구조적 개혁 필요
 - 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존의 노력들로 2013년 노동시장 단위비용은 이탈리아를 제외한 채무국에서 모두 감소할 전망이며, 스페인 등 EU/IMF 구제금융 지원국의 국내지출도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
 - 또한 흑자국의 경우에도 국내지출 증대와 무역부문에서 비무역부문으로의 자원(resource) 전환 등이 요구됨

- 유로지역 방화벽과 IMF의 지원으로 재정여건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은행권 부실 등 정부채권시장의 잠재적 불안(turbulence)이 남아 있기 때문에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 EU와 IMF의 방화벽 구축 합의와 ECB 추가개입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12년 5월 초 그리스 선거 이후 불안정성이 확대
 - 2012년 3월 말 ESFS/ESM의 한도를 7,000억유로로 상향하고, 최근 IMF에서 추가 지원규모를 4,300억달러로 확대함
 - 국채이자 상승과 함께 은행들의 손실흡수 능력이 악화되어 부실 확산
 - 채무위기 국가의 은행이 ECB의 LTRO 자금으로 자국 정부부채를 매입하는 경향이 나타남
 - 금융위기 진정을 위해서는 ECB의 긴급 개입이 필요하지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엄격한 조건이 수반되어야 함
 - 장기적 대책으로서 재정 지배구조의 개혁이 재정지속가능성의 회복 및 유지에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유로지역 전체의 균형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EU 수준의 공동대응이 필요
 - 단기적으로 연대보증 정부채권 발행을 통해 금융부문의 자본을 강화
 - 교통, 에너지, 통신 등 범 유럽 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유럽투자은행이 가용할 수 있는 연대보증 자원을 확충
 - EU 내의 노동이동성 강화, 무역 및 투자시장 확대개방 등 공조를 통한 중기 성장전략 강화

-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긴축이 필요하지만 경제상황에 따라 긴축속도를 조정해야 함

- OECD 국가의 재정적자는 201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겠으나, 부채비율을 위기 이전 또는 GDP의 60%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정긴축이 필요함
 - 재정적자는 2012년에 전년대비 1%p, 2013년에 전년대비 1 ~ 1.25%p 감소할 전망

- 2013년 총채무규모는 2011년 대비 미국 8.5%p, 유로지역 4.75%p, 일본 17%p 증가
- OECD 전망 결과에 의하면 2011년 이후 필요한 GDP 대비 구조적 기초수지 긴축 규모는 일본 13%p, 미국 6.5%p 등으로 나타남

<표 3> 재정수지 전망

(단위: % GDP/잠재GDP)

	2009	2010	2011	2012	2013
미국					
재정수지 (Actual balance)	-11.6	-10.7	-9.7	-8.3	-6.5
구조적 수지 (Underlying balance)	-9.0	-8.6	-7.7	-6.8	-5.4
구조적 기초수지 (Underlying primary balance)	-7.5	-7.0	-5.9	-5.0	-3.4
총금융부채 (Gross financial liabilities)	89.7	98.3	102.7	108.6	111.2
유로지역					
재정수지	-6.4	-6.2	-4.1	-3.0	-2.0
구조적 수지	-4.9	-4.1	-3.1	-1.7	-0.4
구조적 기초수지	-2.5	-1.7	-0.5	0.9	2.3
총금융부채	87.8	93.1	95.1	99.1	99.9
일본					
재정수지	-8.8	-8.4	-9.5	-9.9	-10.1
구조적 수지	-7.6	-8.0	-8.8	-9.2	-9.3
구조적 기초수지	-7.1	-7.4	-8.0	-8.2	-7.9
총금융부채	188.8	192.7	205.5	214.1	222.6
OECD ¹					
재정수지 ¹	-8.1	-7.5	-6.3	-5.3	-4.2
구조적 수지 ²	-6.6	-6.3	-5.5	-4.6	-3.5
구조적 기초수지 ²	-5.1	-4.6	-3.7	-2.7	-1.5
총금융부채 ²	92.5	98.7	103.0	107.6	109.3

1. 칠레, 멕시코 제외

2. 칠레, 멕시코, 터키 제외

* 구조적 수지(Underlying balances)는 경기변동과 일시적 요인을 조정한 지표이며, 구조적 기초수지(Underlying primary balance)는 구조적 수지에서 순채무이자를 제외함

** 재정수지(Actual balances)와 부채(liabilities)는 명목 GDP 비중, 구조적 수지는 잠재 GDP 비중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Table 1.6

- 재정긴축 속도는 총수요에 대한 재정정책의 역효과를 고려해야 함
 - 유로지역의 경우 한 국가가 GDP 대비 구조적 기초수지를 1%p 개선할 때 성장은 0.5%p 둔화되며, 긴축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될 경우 성장 악화 심화
 - 재정여력이 존재하는 유로지역 국가는 긴축속도를 완화하여 성장악화를 방어해야 함
 - 미국은 2012~2013년 구조적 기초수지 긴축 규모를 1.5%로 가정하면 성장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경우 GDP의 200%를 초과하는 국가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긴축시점을 일본정부의 예상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음

- 완만한 경제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 광범위한 재정긴축이 전망되는 상황에서는 경기순응적(accommodative) 통화정책의 적절한 유지가 필요
 - 경기순응적 통화정책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음
 - 일본과 영국은 자산매입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미국과 일본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목표 등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정책의 변화를 구사
 - ECB는 2차례에 걸친 LTRO를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
 - 브라질은 2011년 중반이후 총 350bps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고 호주와 스웨덴, 인도 등은 2011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인하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산매입프로그램을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탈피할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목표(1%) 달성이 불투명할 경우 자산매입프로그램 확대를 포함한 추가대책 필요
 - 비 OECD 개도국의 경우는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선택해야 함
 - 인도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제한된 경제여력으로 부양적 통화정책의 여지가 없으며, 브라질은 인플레이션 목표 안정을 위해 통화부양책 중 일부를 철회해야 함

- 신뢰도 회복을 위한 금융시장 정책을 통해 통화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각국의 구조개혁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 특히 유로지역에 확산된 부실채권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해법모색 필요
 - 규제 및 감독 강화 등 금융 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함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금융부문 신뢰 회복 등이 병행된다면 구조적 개혁의 단기적 효과도 강화될 수 있음

[참고 1] OECD 경제재정전망의 정책 가정 및 기타 가정

- 2012-13 정책 가정은 입법된 세입과 지출규정에 근거하며, 현재 통과되지 않았으나 계획대로 법률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포함함
 - (미국) 2013년 예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2013년 GDP 대비 일반정부의 구조적 기초수지(underlying primary balance)가 1.5%p 개선된다고 가정
 - (일본) 2011년 8월 수정된 중기재정계획에 근거하며, 2012~2013년 GDP 대비 약 2% 규모의 재해복구 지출과 장기적인 세입인상 고려
 - (EU 국가) 국가별로 구조적 예산 구성요소는 다음의 내용에 근거함
 - [독일] 2012년 3월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안정화 프로그램)
 - [프랑스] 프랑스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GDP의 약 0.7% 규모에 해당하는 고용주 사회 보장 부담의 간접세 및 개인소득세 입법 전환
 - [이탈리아] 2012년 3월 제출된 안정화 프로그램의 중기재정계획에 근거, 2013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재정효과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한 추가적 긴축 포함
 - [영국] 2012년 3월 예산안의 세입, 지출정책에 근거
- 일반정부의 금융부채는 각 국가의 회계 관행을 따름
 - 2010~2011년 정부채무 변동이 크게 발생한 그리스와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독립적 평가를 위해 마스트리히트 기준의 일반정부채무로 조정
- 정책이자율은 각국 중앙은행이 설정한 목표에 연계하여 가정
 - (미국) 연준(Federal Fund) 목표 금리는 전망기간동안 계속 0.25%로 유지
 - (유로지역) 기준금리(overnight rate)가 2012년 중반 0에 근접감소 후 2013년 말까지 유지
 - (일본) 전망기간 동안의 단기 정책금리는 10bps로 유지

■ 기타 가정

- 모든 국가에서 양적완화 정책과 기타 정책(unconventional measure)은 불변으로 가정
- 미국, 일본, 독일 및 유로지역 이외의 국가들의 10년물 정부채권 수익률은 느린 속도로 기준수익률(reference rate)로 수렴된다고 가정
 - 국채프리미엄은 GDP 대비 총국가채무 중 75% 초과 1% 당 2bps, 125% 초과 1% 당 4bps로 가정하고, 일본의 경우 75% 초과 1%당 1bps로 가정
 - 독일에 대한 유로 지역 국가들의 장기채무는 현재수준으로 유지
- 고정환율 1달러 = 79.85 JPY, €0.761, CNY 6.31 가정
- 브렌트 원유의 배럴당 가격은 연간 5달러 상승하고, 비석유제품 가격은 2012년 4월 평균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

2. 국가별 경제·재정 전망

1) 미국

- (경제전망) 미국 경제는 최근 몇 달간 고용증가, 생산 및 소비지표 호전 등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보이고 있으나 주택부문의 부진은 지속
 - 저금리 추세가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2012년 하반기에 금융 불안 완화 및 경기 순환상의 회복 기대
 - 금융 불안의 여파와 이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심리위축이 소비 및 생산을 제약하는 현상이 최소한 2012년 상반기까지는 지속
 - 주택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지만, 주택공급 과잉과 주택압류 동향 등 주택 시장 부진은 미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 노동시장의 안정과 주식이격 반등이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가 자동차 판매, 산업 생산, 대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
- (재정전망)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재정적자 감소 전망
 - 재정건전화의 일환인 FY2013 재정긴축계획은 연방 재정지출 감축, 세금감면정책 철회, 실업자 긴급지원 정책 종료를 계획

<표 4> 미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9.3	9.6	8.9	8.1	7.6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0.3	1.6	3.1	2.3	1.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1.6	-10.7	-9.7	-8.3	-6.5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89.7	98.3	102.7	108.6	111.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14526.6 ⁴	1.7	2.4	2.6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based on the BLS Household Survey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from previous year, volume(2005prices)

4. Current prices \$billion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2) 일본

- (경제전망) '12년 대지진 복구 관련 지출이 회복세를 견인하고, '13년에는 내수 개선과 자동차 등 생산시설 복구에 따른 수출증가로 성장세 유지
 - 실업률은 2008년 수준으로 안정세를 찾아 가고 있으며 금융위기 직후 광범위하게 디플레이션 위협이 확산되었으나 '12년 하반기부터 감소할 전망
 - 단, 글로벌 불확실성의 확산에 따른 외수위축과 엔화절상으로 수출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재정전망) 2012~13년 GDP 대비 10%에 육박하는 재정적자 감축을 계획 중이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더욱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대
 - 외수의 불확실성과 내수의 복구수요에 따라 중앙은행이 저금리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도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
 - 총리는 세출삭감보다는 증세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개인소득세율이 인상될 경우, 민간소비에 대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

<표 5> 일본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5.1	5.1	4.6	4.5	4.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4	-0.7	-0.3	-0.2	-0.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8.8	-8.4	-9.5	-9.9	-10.1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88.8	192.7	205.5	214.1	22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481.9 ⁴	-0.7	2.0	1.5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from previous year, volume(2005prices)

4. Current prices ¥trill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3) 유로 지역

- (경제전망) 국가채무 위기로 인한 신뢰 약화,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이며, 회복세는 점진적이고 기복이 심할 것으로 전망
 - 독일과 프랑스는 민간소비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위기국인 그리스와 스페인 및 포르투갈은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어 유럽 내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큰 상황
 - 또한 지정학적인 위협 등에 따른 유가상승이 경제회복을 제한할 소지
 - 긴축 지속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및 민간부문 디레버리징(deleveraging)으로 인한 신뢰 저하를 정책 대응을 통해 방지한다면 '12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될 전망
- (재정전망) 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를 통한 긴축속도의 조정과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 필요하고 가계·금융부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동성 공급 필요
 - 완만한 디레버리징을 통한 가계·금융부문 부문으로의 적절한 자본 지원과 제품 및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노동공급시장의 취업유도정책 필요

<표 6> 유로지역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9.4	9.9	10	10.8	11.1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3	1.6	2.7	2.4	1.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6.4	-6.2	-4.1	-3.0	-2.0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87.8	93.1	95.1	99.1	99.9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9,124.4 ⁴	1.5	-0.1	0.9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from previous year, volume(2009prices)

4. Current prices bill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4) 독일

- (경제전망) 일시적 경기둔화를 겪고 있으나, '13년에는 고용 촉진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로 내수가 회복되어 디플레이션 위협이 감소되고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단, 주변국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한 역내 교역이 축소되어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음
 - 실업률 지표는 유럽 내에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규모 재량지출 감축, 실업급여 삭감 등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효과로 재정적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12년 재정적자 감축 속도는 완만하게 전망

<표 7>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7.4	6.8	5.7	5.4	5.2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2	1.2	2.5	2.3	2.0
소비자물가지수(Core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1.3	0.6	1.2	1.5	1.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3.2	-4.3	-1	-0.9	-0.6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77.4	86.8	87.2	88.5	87.8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2,471.9 ⁴	3.1	1.2	2.0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from previous year, volume(2005prices)
4. Current prices bill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5) 프랑스

- (경제전망) '12년 상반기의 침체 이후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회복(실질 GDP는 '12년 0.6% → '13년 1.2%로 전망)
 - 실업률은 '13년을 기점으로 10.5%까지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은 2% 이하로 감소
 -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주택투자는 크게 감소
- (재정전망) 소극적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출 감축정책으로 '15년 목표치인 GDP 대비 3.0%를 '13년에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세금 구조개혁 및 광범위한 범위의 교육·노동·생산부문개혁 등의 재정정책 전략이 잠재적 성장률을 견인
 - 사회부가세(social VAT)¹⁾ 도입으로 노동비용 축소하고 자본과세와 부가가치세(VAT)를 인상하여 세수 감소분 상쇄

<표 8> 프랑스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9.1	9.4	9.3	9.8	10.0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1	1.7	2.3	2.4	1.8
소비자물가지수(Core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1.4	1.0	1.1	1.6	1.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7.6	-7.1	-5.2	-4.5	-3.0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91.2	95.8	100.1	105.5	107.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1,936.0 ⁴⁾	1.7	0.6	1.2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from previous year, volume(2005prices)
 4. Current prices billion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1)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장제 세금들을 소비에 전가(transfer)시킨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부가세를 몇 % 포인트 인상해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 관련 재원으로 충당해서 고용주가 사회보장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

6) 이탈리아

- (경제전망) 금융시장 위축 · 재정긴축 · 가계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등으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높은 노동비용이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로 재진입
 - 유가상승과 부가가치세 증가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재정전망) 지속적인 재정지출삭감과 세율인상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감소할 것이나, 세금 회피에 대한 대책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추가 재정조치 필요
 - 정규직 근로자 보호 완화를 위한 근로계약제도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훈련과 직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정규직에 유리한 고용보호제도(EPL)에 따른 노동시장이중성 해소, 청년과 여성 등의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가 필요

<표 9> 이탈리아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7.8	8.4	8.4	9.4	9.9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8	1.6	2.9	3.3	2.3
소비자물가지수(Core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1.6	1.7	2	1.9	2.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5.4	-4.5	-3.8	-1.7	-0.6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27.7	126.5	119.7	122.7	122.1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1,552.0 ⁴	0.5	-1.7	-0.4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from previous year, volume(2005prices)

4. Current prices bill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7) 영국

- (경제전망) 영국은 유로지역 내 경기침체로 성장이 부진하지만, 자국 내 실질 소득이 증가세이고 내수시장 소비와 수출 및 투자를 추진시키면 경기회복세로 전환 될 전망

 - '15년까지 정부예산 삭감으로 소비가 위축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가격 하락세는 지속
 - 실업률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성장 부진으로 상승세 지속
- (재정전망) 세수확보를 위한 부가세 인상, 공무원 감원, 임금동결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지속 추진 전망

 - 재정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금융시장 규제 강화, 임대주택 구조개혁, 청장년층 직업훈련 강화 계획 등을 수립

<표 10> 영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7.6	7.9	8.1	8.6	9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2.2	3.3	4.5	2.6	1.9
소비자물가지수(Core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1.7	2.7	3	1.7	1.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1	-10.3	-8.4	-7.7	-6.6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72.4	81.9	97.9	104.2	108.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1,463.7 ⁴	0.7	0.5	1.9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from previous year, volume(2008prices)

4. Current prices £bill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8) 캐나다

- (경제전망) 경기부양 통화정책과 재정 상황 및 교역 조건 개선으로 민간 소비와 기업투자가 활성화 되어 내수 시장 회복세 전망
 - 지속적인 고용 증가로 실업률은 느린 하향 추세 유지
 - 주택시장 내 가격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더욱 엄격해진 모기지 대출 기준 강화 및 금리조정으로 불균형 해소 기대
- (재정전망) 부채규모 감소 노력의 결과 현재까지 낮은 수준의 부채를 유지하고 있으며, '15년까지 재정수지 균형 달성 전망

<표 11> 캐나다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8.3	8	7.5	6.9	6.6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3	1.8	2.9	2.3	2.2
소비자물가지수(Core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1.8	1.7	1.7	2.1	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4.9	-5.6	-4.5	-3.5	-2.4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82.4	84	83.8	84.5	81.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1,624.6 ⁴	2.5	2.2	2.6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from previous year, volume(2002prices)

4. Current prices CAD billion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9) 호주

- (경제전망) 세계경제침체와 자국 내 지역 불균형 심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확장적 통화정책(저금리 정책)과 기술에 대한 투자 지속
- (재정전망) 정부는 지출우선순위 재조정과 세제구조개혁을 통한 지출 축소 등 긴축정책으로 5년 만인 '13년에 재정 흑자 전환 전망
 - 광산업의 폭발적 성장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위해 23년 만에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한편, 광산붐(boom)의 혜택²⁾은 확대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급 시행 등 노동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동력 양성정책은 고용률 약세의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음

<표 12> 호주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5.6	5.2	5.1	5.4	5.7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8	2.9	3.4	1.8	2.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4.5	-4.7	-3.9	-2.2	0.4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9.4	23.5	26.6	28.7	27.8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1.5	2.4	2.2	3.1	3.7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2009/2010prices)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2) 호주는 담배수입으로 의료비용을, 광산수입으로는 온 국민에게 혜택을 베푸는 내용의 예산이 발표

10) 오스트리아

- (경제전망) ‘11년까지 둔화되었던 경제는 재정 상황 개선과 점진적인 소비·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13년 중반 이후 안정세로 전환
- (재정전망) 강력한 재정긴축으로 재정적자는 ‘11년에 GDP 대비 3% 이하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거시경제정책을 통한 재무 안정성 확보가 요구됨

<표 13> 오스트리아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4.8	4.4	4.1	4.6	4.8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4	1.7	3.6	2.3	1.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4.2	-4.5	-2.6	-2.9	-2.3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74.4	78.1	79.7	83	84.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3.6	2.5	3	0.8	1.6

1. Based on Labour Force Survey data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2005prices)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7) 벨기에

- (경제전망) 유로재정위기로 인한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12년 실질 GDP 성장률은 0.1%로 전망되어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섬
 - 전통적인 개방경제체제로 국제시장의 변화에 민감하며, 정부의 긴축정책이 실질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2012년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 지속 예상
 - 석유제품의 가격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2012년 물가수준이 2011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지 않음

- (재정전망) 노령연금부문과 의료부문 등 고령층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 억제 정책으로 '12년에 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하 목표 달성 전망
 - 임금이 특수물가지수³⁾에 자동 연동되는 전통적 제도는 그대로 고수하면서도, 지나친 물가인상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
 - '12년 12월 말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한시적 인상을 동결 하는 한편, 전력과 도시가스 가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전(distribution)가격 인상도 '13년~'14년까지 동결 계획

<표 14> 벨기에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7.9	8.3	7.2	7.5	7.8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	2.3	3.5	2.9	1.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5.7	-3.9	-3.9	-2.8	-2.2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99.9	100	102.3	103.1	10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2.7	2.2	2	0.4	1.3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2009prices)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3) 일반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상품에서 석유제품과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물가지수를 의미

12) 칠레

- (경제전망) '12~'13년 성장률이 '11년보다는 하향 전망되었지만, 4~5%대로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 '10년 대규모 지진 복구사업이 '14년 3월 까지 추진되는 등 인프라 부문의 투자확대가 최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중앙은행은 금리인상 기조를 중단하였고, 경제사회안정화기금(FEES)으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전망) 칠레는 교육에 대한 높은 지출을 원하는 사회적 압박으로 '12년 재정 적자가 예상되나, '13년 균형 재정 달성

<표 15> 칠레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10.8	8.1	7.1	7.2	7.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0.4	1.4	3.3	3.7	2.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4.2	-0.4	1.4	-0.5	0.1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0.9	6.1	5.9	4.4	5.1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8 prices)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13) 체코

- (경제전망) 외부경제 환경악화와 긴축재정으로 인한 민간소비 감소로 '12년 실질 GDP 성장은 하락이 전망되나 수출과 투자 증가로 '13년에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
 - 유로지역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통화정책 대응 필요
 - 중앙은행은 '10년 5월 이후 ECB 금리보다 0.75%p 낮은 0.75%의 정책금리⁴⁾ 유지
 - 체코는 동유럽 국가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선진 OECD 국가와의 수렴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재정전망) '12년 재정건전화 정책은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세수증대에 크게 의존하며 '16년에는 균형 재정을 달성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업률 상승 위험에 대응한 단시간 근로제도(short time work schemes)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일시적 조치여야하며 직업훈련과 병행되어야 함

<표 16> 체코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6.7	7.3	6.7	7	6.9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	1.5	1.9	3.9	2.1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5.8	-4.8	-3.1	-2.5	-2.2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41	45.5	48.3	50.7	5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4.5	2.6	1.7	-0.5	1.7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2005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4) 체코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

14) 덴 마 크

- (경제전망) 지속적인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제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민간소비와 투자가 대체로 부진하여 성장이 둔화될 전망

 - 유럽경제위기로 내수시장에 미칠 우려와 덴마크 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민간 투자 감소
- (재정전망) 민간소비 및 투자의 부진에 대응한 확대 재정정책 집행으로 '12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3.9%로 증가할 전망

 - 하지만 다른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상태가 양호하여 향후 수년간 확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표 17> 덴마크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5.9	7.3	7.4	7.6	7.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3	2.3	2.8	2.7	1.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2.7	-2.7	-1.9	-3.9	-2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51.2	54.8	61.8	63	64.8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5.8	1.3	1	0.8	1.4

1. The unemployment rate is based on the Labour Force Survey and differs from the registered unemployment rat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2005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15) 에 스톤 니 아

- (경제전망) ‘11년 경제성장률은 7.6%로 유로존 내에서 양호한 지표를 보이
나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이 주 교역국인 유로지역의 경기 위축으로 인해
주춤할 것으로 전망
 - 디플레이션⁵⁾은 원유가격 상승과 전력 시장 개방에 의해 일시적으로 중단
- (재정전망) 경기부양 정책과 고질적인 장기실업자 지원정책으로 ‘12년 재정
적자 발생 예상되나 건실한 재정상황으로 ‘14년 균형재정 달성 전망
 - 공무원 봉급 20% 감봉, 공공인력 10% 감원,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연금수령
연령을 올리는 등 흑독한 긴축재정 정책으로 인하여 ‘11년 흑자를 달성

<표 18> 에스토니아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13.9	16.8	12.5	11.4	10.4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2	2.7	5.1	3.9	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2	0.3	1	-2	-0.3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2.7	12.5	10	12.7	12.8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14.3	2.3	7.6	2.2	3.6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2005prices)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5) 인플레이션 완화책

16) 핀란드

- (경제전망) EU 국가 위주의 대외 수출 의존적 경제 구조로 인해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수출이 약화되어 경제 성장이 현저하게 둔화
 - 생필품 가격 인상과 간접세 인상으로 '11년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였고, '16년도까지 약 2.4%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7~8%대를 웃도는 실업률이 향후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
 - 10년 8.4%를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와 실업에 대비한 각종 경기 부양 정책에 불구하고 약화 지속
- (재정전망) '12년에 건강,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출을 25억유로(GDP의 1.3%) 삭감하는 등의 긴축재정정책으로 '13년에는 균형 재정 달성 전망
 - 세금인상과 FY2013-2015년도 공공지출⁶⁾ 삭감을 통해 50억 유로의 재정 확보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 추진
 - 전기, 연료, 제빵, 담배, 신문구독 등에 대한 간접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22→23% 상향 조정 합의
 - 국방예산 삭감, 도로세 신설 검토

<표 19> 핀란드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8.3	8.4	7.8	7.9	7.8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1.6	1.7	3.3	3.2	2.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2.7	-2.9	-0.9	-0.7	0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51.8	57.6	57.2	59.1	61.8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8.4	3.7	2.9	0.9	2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2000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6) 노령연금보장, 의료부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출로 장기간의 재정지출로 적자 부담을 가져옴

17) 그리스

■ (경제전망) 위기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는 1, 2차 구제금융 승인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우려가 여전할 것으로 전망

○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할 경우 그리스와 주변국가의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확산

- 가장 큰 피해는 포르투갈(그리스 국채 76억 유로, GDP 대비 4.4% 보유)→ 스페인(포르투갈 국채 604억 유로, GDP대비 5.7% 보유)→ 프랑스, 독일(스페인 국채 2,300억 유로 보유)로 확산 우려
- 다만, 이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거나 유로존의 유럽 금융기관 지원 등으로 심각한 신용경색 등 금융위기는 피할 수 있다는 전망

○ 고질적인 장기 실업률 특히, 청년층의 실업이(50% 육박) 급증하고 있어 강력한 고용 증진 대책이 필요

■ (재정전망) '12년 3월에 승인된 채무 조정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근본적인 재정 구조개혁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현 수준을 당분간 지속할 전망

○ 그리스는 부동산 세입, 부가가치세 인상,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 삭감 등을 통해 적자를 감축해 오고 있으나 재정 균형 회복이 지연될 전망

<표 20> 그리스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9.5	12.5	17.6	21.2	21.6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1.3	4.7	3.1	0.8	-0.5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5.6	-10.5	-9.2	-7.4	-4.9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34	149.6	170	168	173.1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3.2	-3.5	-6.9	-5.3	-1.3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2005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18) 헝가리

- (경제전망) 주 교역국이었던 유럽의 경기침체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은 '12년도에 -1.5%('11년 11월 전망치 -0.6%, $\Delta 0.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유가 상승, 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12년도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3%를 크게 상회하는 5.7% 기록할 전망
 - OECD는 경기침체에 대한 정책으로 헝가리 정부에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실시를 통한 투자자들의 신뢰회복, 외화대출일시상환제도의 폐지, IMF/EU 등과의 신용 협정 체결 등을 권고
 - 현 정부가 EU의 중앙은행 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IMF/EU는 '12년 4월 헝가리와의 재정지원⁷⁾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
- (재정전망) 강도 높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세입확대 조치로 '12년도 재정적자는 GDP 대비 3%로 전망, 이는 '11년 11월 예측보다 낮은 수치
 - '12년도에 공무원 중 7.9%(5,200명) 감원, 부가가치세 인상(25→27%)⁸⁾,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험 및 연금 기여액 인상 등 각종 세입 증대책 추진

<표 21> 헝가리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10.1	11.2	11	12	12.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4.2	4.9	3.9	5.7	3.6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4.5	-4.3	-4.2	-3	-2.9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86.2	86.4	84.7	84.8	84.1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6.7	1.2	1.7	-1.5	1.1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2005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7) 예상지원 금액은 150억 유로이며 예방적(precautionary) 성격의 재정지원이 될 것으로 설명

8) '11년 말부터 주류, 디젤유, 담배 등에 대한 특별 소비세 인상에 이어 현재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EU내 최고인 2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중

19) 아이슬란드

- (경제전망)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국가였지만, 자체 통화의 평가절하와 엄격한 금융규제 등의 경제정책을 바탕으로 유로존 국가들과 달리 견고한 성장세 전망
 - 통화가치 절하⁹⁾로 수출이 부양되어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 또한 아이슬란드는 엄격한 자본통제 조치를 통해 대규모 자본이탈을 방지
 - 다만, 부채버블 붕괴 전의 경제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음
- (재정전망)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EU의 원칙에서 벗어나 자본통제를 엄격히 한 결과 '14년도에 흑자 재정 전환 전망
 - 통화안정화 정책과, 외화 주택담보대출 가계 구제 협력, 은행 부도 허용¹⁰⁾ 등 엄격한 자본 통제 수행을 통해 재정 건전화 달성 전망
 - 하지만 여전히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긴축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

<표 22> 아이슬란드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7.2	7.5	7	5.8	5.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2	5.4	4	6	4.1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0	-10.1	-4.4	-2.6	-1.4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20	125.2	128.3	126.7	124.7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6.8	-4	3.1	3.1	2.7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5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 9) 크로니화 가치 절하로, 외화로 돈을 빌린 주택보유자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되었지만, 아이슬란드의 사법·정책 당국자들은 모기지론 규제책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규제금융은 은행시스템에 부담이 되었지만, 아일랜드 등과는 달리 아이슬란드는 은행들이 과산하도록 내버려뒀으며, 아이슬란드의 납세자들이 아니라 외국계 채권단이 그 손실의 대부분을 감당하도록 했음
- 10) 은행의 손실을 납세자들이 아니라 은행에 돈을 낸 외국 채권자들이 떠안도록 함

20) 아일랜드

- (경제전망) 북미와 유럽의 수요 회복이 '13년 아일랜드의 수출증대를 이끌며 경기호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유로존 국가들 중 가장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아일랜드의 경우 내부적 평가절하로 수출은 회복됐지만 높은 실업률의 고착화(hysteresis)될 위험
 -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 됨에 따라 노동 시장 상황이 천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된다면 실업률의 안정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음
- (재정전망) '15년까지 新재정협약 기준인 GDP 대비 재정적자 3%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금인상, 세입확대 등 긴축재정정책 유지
 - 높은 실업률이 감안할 때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서비스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표 23> 아일랜드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11.8	13.6	14.5	14.5	14.4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1.7	-1.6	1.2	2	1.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4	-31.2	-13	-8.4	-7.6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71.1	98.4	114.1	121.6	126.9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7	-0.4	0.7	0.6	2.1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2009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2) 이 스 라 엘

- (경제전망) 유로위기의 영향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외부수요가 점차 증가하여 경기 상황을 다시 회복할 전망
 - 유로존 위기와 고물가, 고실업 등의 위험요소는 여전히 존재함
 - 최근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둔화되었으며 주택가격-임대료 비율 등 지표도 위험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외환시장개입을 통해 수출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
- (재정전망) 적자비율 목표제를 시행하여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감축, 2010년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적자비율이 GDP 대비 1%p 감소할 전망
 - 적자비율 목표달성에 최우선 순위를 계속 두고 새로운 재정규칙에 따라 지출 증가를 결정하고 통상적인 중기 재정계획을 강화
 - 동시에 2년 단위의 예산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표 24> 이스라엘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9.4	8.2	7	6.9	6.7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3.3	2.7	3.5	2.2	2.5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6.4	-5	-4.4	-4.3	-4.2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79.5	76.1	74.2	73.9	73.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0.8	4.8	4.8	3.2	3.6

1. Employment and unemployment data prior to Q1 2012 are derived from a quarterly labour-Force survey that has since been replaced by a monthly survey, which included a number of methodological changes. The data prior to Q1 2012 have been adjusted to be compatible with the new series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2005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22) 한국

- (경제전망) 한국 경제는 '12년 말에 주요 교역국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수출호조로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상승세 전망

 - 완만한 경제성장으로 물가상승률은 '11년 4% 수준에서 '12년 3% 수준으로 하락하여 가계구매력을 제고
 - 단, 성장세가 회복되고 있지만, 유로지역 악화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 유가상승, 한국의 주요 교역국의 성장 불확실성 등의 잠재 위협 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재정전망) 재정정책은 지속 추진한다면 '1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 전망

 - 중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참여율을 제고하고, 특히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
 - 경기 회복을 감안해 물가상승률이 목표범위 내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금리를 인상할 필요

<표 25> 한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3.6	3.7	3.4	3.5	3.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8	2.9	4	3	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1	1.3	1.8	2.3	2.8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33.5	34.6	34.7	34.5	33.9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0.3	6.3	3.6	3.3	4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5 prices)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23) 룩셈부르크

- (경제전망) 룩셈부르크의 산업용품(industrial goods) 수출국들의 경기침체로 수출이 감소하여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다가 '13년 유로존 경기가 호전되면서 차츰 회복될 전망

 - 수출수요가 둔화됨으로써 실업은 증가할 전망이며 인플레이션은 상승유가로 인해 서서히 하락할 것임

- (재정전망) 정부지출을 감축하고 세입 증가를 유지한다면 '13년에 계획된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를 달성 전망

 - 임금인상 억제조치 일환으로 임금인상에 특수 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있는 임금 물가 연동제 개혁의 필요성 언급
 -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향상시키는 등 노동시장제도 개혁으로 실업률을 제고
 - '11년 정부부채가 GDP 대비 23.9%로 매우 양호한 상태이나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침체되어있는 만큼 주의 깊게 경제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함

<표 26> 룩셈부르크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5.5	5.8	5.7	6.3	6.6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	2.8	3.7	3.1	2.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0.8	-0.9	-0.6	-1.4	-1.1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18	24.7	23.9	26	28.7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5.3	2.7	1.6	0.6	2.2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5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24) 멕시코

- (경제전망)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 및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강력하게 지속되었던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

 - 단, 최근 주요선진경제권의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09년 경제위기사 GDP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상황에는 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멕시코는 포스트 브릭스(Post-BRICs)¹¹⁾ 중 한 국가로 잠재성장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으나 수출·관광 등 미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한계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경제구조 재편을 위한 자구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

- (재정전망) 기대보다 높은 석유세입으로 '12년에도 재정건전화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마약전쟁 등 사회경제 전반의 불안 요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정책적인 해결책 마련할 것을 권고

<표 27> 멕시코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5.5	5.3	5.2	5.1	4.9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5.3	4.2	3.4	4	3.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²⁾	-6.3	5.5	4	3.6	3.8

1. Based on National Employment Survey

2.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3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11) BRICs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디아(India)', '차이나(China)'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며 Post-BRICs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국가를 설명함

25) 네덜란드

- (경제전망) ‘11년 상반기 교역 등 경제 환경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하반기 유럽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네덜란드의 정부지출 축소, 무역량 감소, 고실업 지속, 구매력 감소 등의 영향을 미칠 전망
- 민간소비는 가계부채의 증가, 연금펀드 지급액의 감축, 세제혜택 감소 등으로 인하여 감소 될 것이며 투자 역시 시장상황 악화와 기업 재무안정성 강화 정책에 따라 위축될 것으로 예측
-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12년 말 주요 교역국의 경기호전에 인한 수요 회복기대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노동시장의 침체가 심화되어 실업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모기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혜택으로 주택담보부채 폭증, 연금펀드 건전성 악화, 쌓여가는 재정적자와 긴축재정 압박이 위험요소로 대두
- 재정적자를 극복하고자 FY2011~2015년까지 180억유로의 재정 감축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 정부목표에 의하여 재정적자 감축
 - 공무원 감축 추진, 사회안전보장제도 축소, 건강보험 예산 감축
 - 다만, 과도한 긴축은 경제회복을 저해할 우려

<표 28> 네덜란드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3.7	4.4	4.4	5.3	5.7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1	0.9	2.5	2.4	1.5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5.5	-5	-4.6	-4.3	-3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67.5	70.6	75.2	81	83.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3.5	1.6	1.3	-0.6	0.7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5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26) 뉴질랜드

- (경제전망) 저금리 정책, 지역 지진 활동의 감소, 지진 피해지역의 긍정적인 재건상황¹²⁾ 및 주요 교역 상대국인 호주와 중국의 비교적 꾸준한 경제 활동으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을 전망
 - 건설경기 호황의 여파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11년 4%까지 올라간 물가지 수는 현재의 경제위기 장기화를 우려한 뉴질랜드 정부가 재정지원책의 신중한 접근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고 연간 목표치 수준을 유지 예측
 - 제조업, 소매, 농업, 건설, 서비스 모두에 걸쳐 상승세
- (재정전망) 재정 흑자는 FY2014~2015에 가능할 수도 있으나 세계적으로 불황의 국면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어 따라 재정 흑자의 전환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
 -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하여 저축성 국민연금인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정부 보조금 삭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축소 등의 지속적인 복지지출 축소감행 권고

<표 29> 뉴질랜드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6.1	6.5	6.5	6.5	6.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1	2.3	4	1.7	2.6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2.6	-4.2	-8.2	-4.4	-2.9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34.5	37.4	44.3	48.4	50.5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0.1	2.4	1.3	1.9	2.8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1995/1996prices)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12) 지진 피해 지역인 캔터베리 지방 및 오타고(Otago), 넬슨 말보로우(Nelson- Marlborough)지역은 주택 및 주거용 건축물 개발 산업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투자의지도 모두 평균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재건상황을 보이고 있음

27) 노 르 웨 이

- (경제전망) 노르웨이 경제는 유로지역의 높은 불확실성에 다소 제약을 받을 것이나 석유산업관련부문 및 공공서비스부문의 호조 등에 힘입어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노동시장 성과는 낮은 실업률 및 높은 노동참가율 등의 측면에서 매우 좋은 상황

- (재정전망) '12년 구조적 재정적자는 글로벌 정부연금기금(Government Pension Fund Global: GPFG) 규모의 4%미만¹³⁾(3.9%)으로 설정됨에 따라 '11년 재정정책을 통한 부양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노르웨이의 재정규칙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은 OECD 회원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의 공공지출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공공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

<표 30> 노르웨이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3.2	3.6	3.3	3.3	3.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2.2	2.4	1.3	1.1	2.1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0.6	11.2	13.6	15.1	16.3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48.9	49.6	34	28.1	20.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1.7	0.7	1.6	2.3	2.6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9 price)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13) 석유수입 및 경기 순환적 요인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적자규모(구조적 적자규모)가 예산년도 직전말 GPFG 자산규모의 4%(평균 투자수익률)와 평균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재정규칙이 있음

28) 폴란드

- (경제전망) 주요 경제 파트너인 EU 주변국들의 경기 침체로 수출 감소, 즈위티 약세로 인한 원유가격 및 물가 상승 등 악재가 겹쳤지만 탄탄한 내수와 유로 2012 개최로 인프라분야의 활발한 투자로 플러스 성장 유지 전망
- EU 위기의 악영향에서 벗어날 순 없지만 내수시장과 금융 분야의 안정성을 비롯한 건실한 기초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최소 '15년까지 경제 성장률은 EU 국가 평균을 상회할 전망
- 실물경기 악화, 소비 감소, 물가 상승 등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고용 감소, 실업률 상승 전망
 - 2012년 경제 불황을 대비한 대규모 인원감축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등 공업 부문 근로자의 대량해고 가능성에 따른 실업률 상승 우려
- (재정전망) '11년 말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안을 내놓았으며 향후 이 개혁안의 성공적인 실행 여부가 '12년 경제 정책 전반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
- 연금 개혁, EU 지원금 매각 및 환율 개입을 하는 등의 강도 높은 재정 개혁안을 추진하여 재정적자를 '12년에 GDP 대비 3% 이하로 낮추고 '15년까지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5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표 31> 폴란드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8.2	9.6	9.6	10.3	10.6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3.8	2.6	4.2	3.9	2.8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7.4	-7.9	-5.1	-2.9	-2.2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58.4	62.3	63.3	62.9	62.3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1.7	3.9	4.4	2.9	2.9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5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29) 포르투갈

- (경제전망) 긴축정책의 여파로 경기침체에 빠진 포르투갈은 '11년 내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12~'13년 각각 2%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전망

 - 고용창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으로 '13년까지 실업률은 16.2%까지 증가할 전망

- (재정전망) 간접세 인상 등 지속적인 긴축으로 2011년 재정적자가 크게 감소하였고 '14년에는 GDP 대비 3% 이내로 축소될 것이나, 국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감소세로 전환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전망

 - 구제금융 지원에 따라 초강도 긴축재정을 단행해야하며 무엇보다 노동, 금융, 법무, 보건, 에너지, 통신 분야에서 구조조정과 개혁이 요구
 - 적자 감축을 위해 실업수당 지급 기간 단축, 공무원 수 축소¹⁴⁾, 세금인상,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세입확대 정책, 사회보장 관련 가족보조금 수혜 빈곤가정 숫자 감축하는 등 정부 지출삭감 도입 중

<표 32> 포르투갈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9.5	10.8	12.8	15.4	16.2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9	1.4	3.6	3.1	0.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0.2	-9.8	-4.2	-4.6	-3.5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92.9	103.2	117.6	124.3	130.1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2.9	1.4	-1.6	-3.2	-0.9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6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14) 중앙정부 매년 1%, 지방정부 매년 2%

30) 슬로바키아

- (경제전망) 경제 성장률 회복세를 보였으나 유로존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 성장 둔화, 소비자 신뢰도 감소, 금융 불안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 되어 '12년 1.5% 전망

 - 원유,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소비자물가는 '13년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생산과 민간소비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음
 - 실업률은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데다 경기 후행하는 노동시장의 특성상 당분간 높은 수준 유지

- (재정전망) 최우선적으로 국가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국민복지 유지를 위한 세금 정책(고소득층·기업대상 세금 인상) 등 좌파 성향의 경제정책을 추진 중이며 '13년 GDP 대비 3% 이하로 감축 전망

<표 33> 슬로바키아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12	14.4	13.5	14	13.5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9	0.7	4.1	3.2	2.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8	-7.7	-4.8	-4.6	-2.9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40.4	47.1	46.8	52.1	54.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4.9	4.2	3.3	2.6	3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5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31) 슬로베니아

- (경제전망) EU 경제 침체로 생산 투자, 무역 경쟁, 노동 시장 향상 등에서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위를 보이고 있어 경기 둔화는 지속될 것이며 실업률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을 전망
- 금융 부문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하는 등 노동 시장 구조를 개혁
- (재정전망) 연금 제도 개혁 및 공무원 급여 삭감 등의 지속적인 긴축재정정책으로 '13년까지 GDP 대비 3% 재정적자 목표 달성 전망

<표 34> 슬로베니아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5.9	7.2	8.2	8.8	9.2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9	2.1	2.1	2.4	1.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6.1	-6	-6.4	-3.9	-3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44.3	48.4	56.4	60.3	63.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8	1.4	-0.2	-2	-0.4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0 prices)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32) 스페인

- (경제전망) ‘13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유로 안정화 기준인 GDP 대비 3%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전망이며 그리스와 함께 가장 심각한 경제 및 고용 위기를 겪고 있음
- 가계부채 및 모기지 대출, 저축은행 부실, 지방정부 부채, 고실업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극대화 되어 있어 경제 정상화 가능 여부가 아직 미지수 상태이며 ‘13년까지 경제전망은 부정적
 - 모기지 부실¹⁵⁾에 따른 저축은행 부도→은행 연쇄 파산 우려→전반적인 민간소비 위축은 정부의 지출부담 가중 우려
- (재정전망) ‘12년 재정 긴축규모는 GDP 의 4.5% 규모로 계획되어있으며 ‘13년 3% 적자 목표를 하고 있으나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 됨
- 소비세 증가를 포함해서 예상되는 긴축규모는 GDP 의 2.75% 정도

<표 35> 스페인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18	20.1	21.6	24.5	25.3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0.2	2	3.1	1.6	2.1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1.2	-9.3	-8.5	-5.4	-3.3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62.9	67.1	75.3	87.9	90.9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3.7	-0.1	0.7	-1.6	-0.8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8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15) 모기지 연체율 7%상회

33) 스웨덴

- (경제전망) 주요 교역 국가인 남유럽의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향후 교역¹⁶⁾,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경제활동이 둔화되겠으나 '13년에는 세계무역시장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경기에 활력이 생길 전망
- 유로존 금융위기로 인한 장기 실업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강력한 재정준칙¹⁷⁾ 도입 후 지출을 통제하고 지방정부의 균형 재정을 의무화하는 등 일련의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가 진행되어 건전한 균형재정 전망
- 소득세 인하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실업자 고용기업에 고용주세를 감면해주는 등 노동시장에 재정지출 확대
- 외국 재정성에 크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유럽재정위기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경기의 급진적 악화에 대비하여 재정비축 필요

<표 36> 스웨덴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8.3	8.4	7.5	7.6	7.6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²⁾)	-0.5	1.2	3	1.4	1.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³⁾)	-1	-0.1	0.1	-0.3	0.3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³⁾)	51.8	48.9	48.7	48	4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⁴⁾	-5	5.8	4	0.6	2.8

1. The consumer price index includes mortgage interest costs

2. Historical data and projections are based on the definition of unemployment which covers 15 to 74 year olds and classifies job-seeking full-time students as unemployed.

3. As a percentage of GDP

4. Percentage changes, volume (2010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16) 스웨덴은 적은 인구로 인한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임, 특히 EU 국가들이 차지하는 교역량이 전체의 70%를 차지해 스웨덴의 대외수출은 EU 국들의 경제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음

17) 중앙정부의 지출한도를 설정

34) 스위스

- (경제전망)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제외환시장에서 국제통화로서의 선호에 따른 스위스 프랑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스위스 경제성장은 소폭 성장 전망

 - 수출·수입의 증가가 스위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나 민간소비·공공지출은 '11년 대비 소폭 증가 예상
- (재정전망) 건전한 재정정책, 글로벌 금융위기기간 중 비교적 얇은 경기침체, 빠른 경기 회복 등으로 재정흑자 지속

 - 하지만 대형 은행 및 보험회사로부터 발생하는 금융리스크 큰 상황으로 모기지 대출 및 주택가격 동향 모니터링 등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강화 필요¹⁸⁾
 - 부가가치세(VAT) 과세대상 확대, 개인소득세 인하, 배우자 소득 분리과세 도입,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폐지 등 성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세시스템 개편 권고

<표 37> 스위스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4.3	4.4	4	3.9	3.7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0.5	0.7	0.2	-0.5	0.1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 ²⁾)	1	0.6	0.8	0.6	0.6
국가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²⁾)	42.5	41.7	41	40.8	39.4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³⁾	-1.9	2.7	1.9	0.9	1.9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As a percentage of GDP
 3. Percentage changes, volume (2000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18) 모기지 대출 증가가 과도할 경우 담보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등과 같은 규제조치들을 취해야 함

35) 터 키

- (경제전망) '11년 하반기 무역량 증가와 계속된 투자 증가 추세에 힘입어 고성장을 달성하였으나, 경기과열 조짐으로 대외 불균형이 급속히 증가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화 될 전망

 - '12년 성장 전망은 긴축 통화·재정정책 조합에 따라 완만한 추세일 것이나 소비자들의 대출 증가율 둔화 및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 하락 예상
 - 환율이 경쟁력을 회복하게 됨에 따라 순수출 증가가 전망되며 경기 회복 조짐에 따라 실업률은 '12년 초 1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바, 이러한 하락추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01년 재정위기 이후 터키 정부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75%에서 현재 40%대까지 감소시켜 왔으며 재정적자는 '13년에 GDP 대비 2% 이하로 전망

 - 재정정책에 있어 보다 단순하고 공정한 과세체계를 갖추고 직접세 수입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요구됨
 - '12, '13년 인플레이션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이 필요하나, 세계 금융시장 현황과 터키의 해외 금융수요를 고려할 때 그 효과는 제한적

<표 38> 터키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업률(Unemployment rate ¹)	13.7	11.7	9.6	9.5	9.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6.3	8.6	6.5	9.2	7.2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²	-4.8	9.2	8.5	3.3	4.6

1. As a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changes, volume (1998 price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36) 브라질

- (경제전망) '09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꾸준한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12년 경제성장률은 소폭 증가한 3% 초반 대 전망

 - '11년 2.7%로 '10년(7%)에 비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12년 역시 글로벌 경기 위축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는 불가피
 - 단, 월드컵('14년) 및 올림픽 개최('16년) 등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대규모 인프라 투자 증가세 확대와 최저임금개선에 따른 내구재 판매 증가 등이 기대되면서 '13년 4% 초반 대 성장률 전망

- (재정전망) 공공부문 연금 구조 개혁 등으로 GDP 대비 재정 적자가 '13년까지 3% 이하 목표를 달성할 전망

 - 예산에 모두 반영되진 않았으나 건축의 총 규모는 GDP 대비 1.5%로 추정

<표 39> 브라질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 GDP 성장률(Real GDP growth)	-0.3	7.6	2.7	3.2	4.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4.9	5	6.6	4.9	5.3
재정수지(Fiscal balance ¹)	-3.3	-2.5	-2.6	-3.2	-2.9

1. As a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37) 중 국

- (경제전망) 유럽 재정위기의 재확산 위험과 미국의 재정불안 지속으로 '10년에 이어 '11년에도 긴축기조가 유지되었으나, 투자 및 소비 등 내수시장 성장에 힘입어 9%가 넘는 성장세 유지 전망

 - 수출 다각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10년 EU와 미국이 총수출의 37%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던 만큼 외수 위축에 따른 동반 위축 가능성 배제 못함
 - 경기부양과 인플레이션 억제,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유지 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2년 중 안정적인 유동성 증가를 보장하는 한편 부동산 긴축 정책의 지속 등 산업별로 차별화 정책 운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 (재정전망) '12년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는 1.3%까지 증가하고 예산외 기관(off-budget entities)의 우발채무를 포함한 정부부채 비율은 '12년 44%까지 감소할 전망

 - 소비 시장 진착책에 따른 개인소득세 개정안 시행(9.1)에 따라 '12년 약 5,000억 위안의 세금이 감소할 전망이며, 또한 '12년 재정정책이 보다 의료·교육·복지 확충 등 소비 진작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

<표 40> 중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 GDP 성장률(Real GDP growth)	9.2	10.4	9.2	8.2	9.3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0.7	3.2	5.5	3.3	2.8
재정수지(Fiscal balance ¹)	-1.1	-0.7	0.1	-1.3	-0.9

1. As a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38) 인도

- (경제전망) 8%대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 긴축에 따른 투자 감소 및 글로벌 경기 위축 영향으로 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

 - 고물가로 인한 긴축 지속 가능성 및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나 성장률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7%대 성장률 전망
 - 다만 인플레이션 가속화, 외국인 투자 감소 및 열악한 사회기반 시설, 정부 정책 불신 등은 리스크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 상존

- (재정전망) 중앙정부는 '13년도 재정적자를 GDP 대비 5.1%로 계획하고 있으나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며 '12년부터 실시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인프라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서비스 세입기반 확대, 소비세 증가 등으로 세입 확대가 예상되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보조금 지출이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표 41> 인도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 GDP 성장률(Real GDP growth)	8.2	9.6	7	7.3	7.8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2.4	10.4	8.4	7.9	6.8
재정수지(Fiscal balance ¹)	-9.4	-7.9	-8.1	-7.9	-7.3

1. As a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39) 인도네시아

- (경제전망) '12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인프라 수요 지속 및 소비 증가세가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나 유럽 재정위기 확대에 따른 성장 둔화는 불가피
 -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출 의존도와 소비 및 투자 등 내수의 견고한 성장세 지속으로 '11년 6.5%의 높은 성장률 기록
- (재정전망) 추가적인 재정 여력확보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에너지 보조금 축소가 필요하며 재정적자는 '11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표 42> 인도네시아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 GDP 성장률(Real GDP growth)	4.6	6.2	6.5	5.8	6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4.4	5.1	5.4	5.9	5.2
재정수지(Fiscal balance ¹)	-1.6	-0.7	-2	-2	-1.8

1. As a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40) 러 시 아

- (경제전망)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금융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나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 회복, 에너지 수출량 증가 등으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회복될 전망
 - 경기부양책 효과, 2012 유로 월드컵, 유가 상승, 수출 증가 및 소비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률 '12년 4.5% 전망
 - 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자금 이탈 및 '12년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루블화의 약세 압력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재정전망) 유가 상승에 따른 세입여건 호조 등으로 '12년 GDP 대비 재정수지 1% 흑자 전망
 - 정부의 재정지출을 전면 삭감하고 원유 수출을 통해 적립한 예비기금으로 재정수지를 개선할 계획
 - 원유 가격 상승으로 석유와 가스에 의한 수익 잉여금이 매우 큼

<표 43> 러시아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 GDP 성장률(Real GDP growth)	-7.8	4.3	4.3	4.5	4.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1.7	6.9	8.4	4.6	5.8
재정수지(Fiscal balance ¹)	-4.3	-3.5	1.6	1	0.7

1. As a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4) 남아프리카공화국

- (경제전망) 경제성장은 경기 회복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으나 대외경제에 대한 민감성과 구조적 실업률 증가 등 위험요소도 존재
 - 노동력 인구 증가를 고용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또한 흑인 실업률이 30%에 육박하는데 비해 백인 실업률이 5%대로 인종간 실업률 격차가 큼
 - 노동 관련 다양한 규제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화도 큰 과제임
- (재정전망) 재정긴축이 진행 중이나 '13년에 GDP 대비 4.7%의 적자가 예상되므로 긴축속도를 증가시켜야 함
 - 공공부문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재정건전성 정책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서 재정적자 확대를 막을 수 있음

<표 44>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및 재정전망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질 GDP 성장률(Real GDP growth)	-1.5	2.9	3.1	3.3	4.2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7.1	4.3	5	5.6	4.7
재정수지(Fiscal balance ¹)	-5.5	-6	-5.7	-5.4	-4.7

1. As a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3. 글로벌 성장 및 불균형에 대한 중장기 시나리오¹⁹⁾

- 중장기 시나리오는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단기 전망을 확장한 새로운 모델로 분석함

[참고 2] 장기 경제 전망을 위한 새로운 모델

- 잠재 생산(potential output)의 장기 전망임
 - 물적·인적자본과 노동에 규모수확불변(constant return to scale)인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 총요소생산은 기술 선도국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빠르게 수렴함
 - 국가 고유의 구조적 조건과 정책에 따라서도 달라짐
- 모든 국가가 장기에 글로벌 기술진보율에 의해 동일 비율로 성장하지만 기술수준, 자본집약도, 인적자본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 인당 GDP갭이 존재함
 - 균제상태 이하의 국가가 자본 축적,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추격(catch up)하거나 균제상태 수준 자체가 구조적 조건(eg.세계화) 변화 및 최적 정책 전파로 수렴할 때 GDP갭이 축소됨
- OECD국가의 개인저축률은 인구 통계적 요인(eg.부양비)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재정수지(fiscal balance), 교역조건, 생산성 향상, 신용 가용성(availability of credit) 등도 영향을 미침
- 이자율은 정부의 채무원리금 상환(deb service) 비용과 투자에 영향을 미침
 - 생산갭이 축소되면 단기금리는 국가별 인플레이션 타겟, 잠재 생산의 성장률, 국제수지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음
 - 장기금리는 단기금리,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 재정 리스크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음
 - 장기금리의 움직임은 국제 금리를 통해 국제 저축과 투자를 함께 움직임
- 국가수준의 불균형은 경상수지를 반영함
 -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석유 수출국은 경상수지에 대한 개별 전망이 없으므로 석유류 교역 수지 전망을 바탕으로 통합하여 계산함
 - 실질 유가는 2020년까지 연간 5% 상승을 지속하는 것으로 가정
- 정부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중기에 걸쳐 안정화 함
 - 채무원리금상환은 채무금액과 시장금리에 반응하나 만기구조에 따른 시차가 있음
 - 높은 채무 수준은 높은 재정리스크 프리미엄을 수반한다고 가정

19) 이하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2012.5) 'Chapter 4. Medium and Long-term Scenarios for Global Growth and Imbalances' 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생산갭이 축소되면 잠재생산 수준으로 성장하고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이 국가나 지역별 타겟 수준으로 회귀하도록 함
 - 이러한 경로에 국가 채무에 대한 신뢰의 위기, 채무 불이행, 금융기관 연쇄 도산, 유가 상승, 자연재해 등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음
- 구조 및 재정 정책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노동시장 정책, 생산시장 및 교역 규제, 재정건전화, 신흥국의 복지정책 등이 저축, 국제수지 불균형, 채무, 자본축적 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함
- 경제위기는 잠재생산 수준을 영구적으로 낮추지만 성장률에는 영구적인 역효과를 미치지 않음
- OECD 잠재 성장률은 주로 인구고령화와 같은 인구통계적 요인에 의해 장기에 걸쳐 완만할 것임
- 유가 상승은 성장을 저해하지만 경기 회복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참고 3] 모형의 주요 가정

■ 장기 기준 시나리오의 주요 가정

- (생산갭) 최초 규모에 의존하고 4-5년에 걸쳐 서서히 축소되며 일반적으로 2018년에 거의 사라진다고 가정함
- (유가) 상승 압력은 10년간 지속됨
 - 2013-20년은 5%, 2020-30년은 2%, 그 이후는 매년 1% 상승
- (환율) 대부분의 OECD 국가의 2국간 환율은 실질적으로 불변
 - 실질 임금이 일정수준 이하인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들의 실질 달러환율은 생활수준 수렴에 따라 가치 상승(Harrod-Balassa-Samuelson 효과)
- (신용 가용성) 민간부문 신용가용성은 미국(GDP의 200% 수준)을 따라잡을 것을 가정함

■ 통화/재정정책 관련 가정

- (정책금리) 생산갭 축소에 따라 정상화되고 실질 단기금리에 수렴해 감
- (인플레이션 타겟) 2%, 단 일본, 호주, 칠레, 터키 등은 예외임
- (기초재정수지) GDP 대비 채무비율이 증가하는 국가는 채무비율이 안정될 때까지 기초재

정수지가 GDP의 0.5% 포인트로 점차 증가

□ 구조 정책 관련 가정

- (활동적 기대수명) 일정 (최근 연금개혁으로 2050년에 노동 참여는 평균 0.7% 포인트 증가)
- (실업) OECD 국가의 구조적 실업은 2007-13년 사이에 추정된 최저 수준으로 회귀하고 OECD 평균보다 실업률이 높은 비OECD 국가의 경우 점차 평균 실업률 수준으로 수렴함
- (교육기간) 근로자당 평균 교육 연수의 장기 증가 추세는 지속됨
- (규제) 생산시장과 교역의 규제가 엄격한 국가는 2011년 OECD 평균 규제 수준으로 수렴함
- (사회보장 지출) 비OECD 국가의 사회보장 지출은 평균적으로 GDP의 4% 포인트 증가하며 정부 저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원조달 방식을 가정함

□ 강력한 정책 실행의 부재는 재정 불균형을 더욱 확대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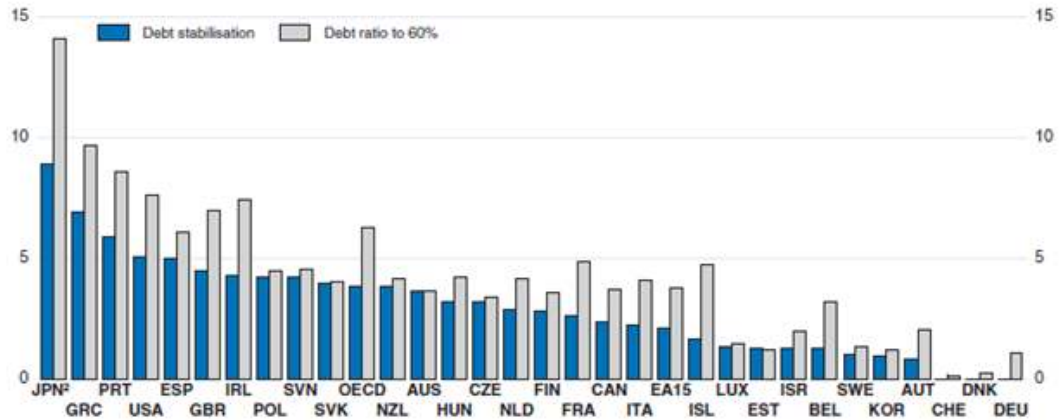
- 기준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주요 거시경제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함
 - 정부부채 증가, 국제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 금리인상 압력 등(<표 46>참고)
- 향후 국가 채무는 더욱 증가하고 이는 성장에 리스크로 작용함
 - 기준 시나리오는 채무 증가로 인해 GDP 성장률의 0.5~0.75%p 축소될 것으로 추정함
 - 음의 성장효과는 고금리, 개인 투자 및 R&D의 구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 재정리스크 프리미엄으로 인해 국가수준의 금리가 상승하고, 재정 불균형이 글로벌 저축 부족으로 이어져 국제수준의 금리가 상승함
 - 고금리는 자본투자 감소, 잠재 생산 감소로 이어지며 많은 OECD 국가들이 이러한 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고금리와 저성장은 채무동학(debt dynamic)을 더욱 악화시킴
 - 낮은 성장률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높이고 고금리는 채무원리금 상환을 늘려서 채무비율을 높임
 - 위기 이전의 OECD 국가들은 국채 금리와 명목 잠재성장률의 차이로 인해 부채가 내생적으로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었음

- 잠재성장률이 위기 이전에 비해 감소하고 금리가 금융 상황 및 정책금리에 따라 상승하면서 금리와 성장률의 격차가 급속도로 증가해 양의 값이 될 것임
- 일본은 OECD 국가 중 2013년에 가장 높은 채무 비율(GDP 대비 223%)이 예상되며 향후에도 지속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급속하게 변화할 것임
 - 민간저축률이 높은 일본은 국가 채무의 국내 조달이 가능해 리스크프리미엄이 낮았으나 향후 해외 자원 조달이 불가피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높은 재정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임
 - 인구 고령화로 인한 민간 저축률 감소로 2010년대 후반까지 일본의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재정건전화의 강도가 높게 (ambitious) 요구됨²⁰⁾
 - (기준 시나리오) 총 재정 건전화 요구는 대부분 2013년 기초재정수지 규모에 달려 있음
 - (대안 시나리오) 재정 수지를 매년 GDP의 1% 포인트까지 개선하고²¹⁾ 총 부채비율 목표를 GDP 대비 60%로 함(그림 2 참조)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채무비율을 60% 까지 줄이기 위해 상당한 건전화가 필요함
 - OECD 국가의 평균 총 정부 채무는 2030년까지 GDP의 50% 미만으로 낮추고 부채비율이 100%가 넘는 국가도 2013년 기준, 10개에서 1개(일본)로 줄임

20) 기준시나리오는 재정건전화를 채무비율 안정화 수준으로 가정하고 대안시나리오는 지속가능한 수준의 채무비율 감축을 목표로 함

21)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미국, 영국, 일본은 1.5% 포인트

[그림 2] 대안 시나리오의 재정건전화 요구



* 2011~30년에 채무비율을 안정화하거나 GDP의 6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기초수지의 평균적인 개선을 표시. 일부 국가는 2030년 이후에 목표 채무 비율을 달성함
 ** 일본은 2030년 이후, 채무안정화에 충분한 수준이 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Figure 4.1

○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는 금리를 낮추고 성장을 촉진

- 재정건전화는 금리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침
 - 정부 채무액이 작을수록 국가의 재정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함
 - 국제 저축 증가는 국제금리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규모가 큰 국가가 상당한 수준의 건전화에 착수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30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장기 실질금리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대안 시나리오에서 약 90bps 낮음
- 실질금리가 낮을수록 자본 비용을 감축하여 OECD 잠재생산이 2030년까지 2% 이상 증가하고 채무금액이 많이 하락하는 국가들의 경우 그 증가폭이 더 큼

○ 재정건전화와 성장 사이에는 여전히 상충관계가 존재하므로 건전화 수단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통해 성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함

-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에 있어 수요에 대한 단기적 효과²²⁾는 물론 잠재 생산에 대한 중장기 효과를 고려해야 함

22) 수요에 대한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국가별로 정책 이자율 조정 여지, 신뢰에 대한 재정건전화의 영향, 재정 수단, 건전화 속도 등에 따라 달라짐

- 만약 긴축재정이 성장을 저해하고 생산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면 적자 감축으로 인한 이점(단기)보다 지불능력 악화로 인한 문제(장기)가 더 커질 수 있음
- 수요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여력이 있다면 재정건전화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건전화 속도와 건전화 수단에 대한 정부의 선택이 쉽지 않음
 - 전망한 속도로 회복이 진행된다면 통화정책에 대한 제약이 덜 중요함. 또한 이자율 정상화 속도는 예산 개선의 결과로 수요 악화를 상쇄하는데 맞춰짐
- 장기 재정상태 개선 수단(지출분야 개혁, 왜곡적인 보조금 감축, 세원 확대 등)에 가중치를 두으로써 성장 상충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음

■ 최근의 재정 건전화 계획

- 재정건전화 요구가 가장 큰 11개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중기 재정계획에 연동된 목표에는 차이가 있음(<표 45> 참고)
 - (미국) 정치적 합의 부재로 미래의 건전화 정도, 속도, 수단의 불확실성 발생
 - (일본) 매우 높은 채무 수준에서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수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등) 2013년 이후 계획된 건전화 정도는 앞서 언급한 채무안정화 시나리오를 상회하여 채무비율 감축에 충분할 것임
 - (영국) 3개년에 걸친 재정 긴축(GDP의 3.6%) 등을 담은 최근 계획은 앞서 언급한 채무안정화 시나리오보다 강도가 높음
 - (기타 EU 국가) 신뢰할만한 중기 재정계획이 필요함

<표 45> 주요 OECD 국가들의 중기재정계획¹

	‘11 재정 상황			중기 재정 계획 요약
	재정 수지	건전화 규모 ²	총 채무	
벨기에	-3.9	1.2	102	‘15년 명목 균형예산 달성, 매년 GDP의 1% 재정건전화 조세제도 개혁, 특정 분야 지출 감축 등을 통해 ‘14년까지 GDP의 2%의 재정적자 감축 및 ‘20년까지 GDP의 4.5%로 기초재정수지 유지
그리스	-9.2	6.9	170	공공부문 근로자, 자본 지출, 복지 혜택 범위 감소 등 지출 감축을 통해 ‘15년까지 GDP의 2.8%로 헤드라인 적자 감축. VAT/자본세/요금 인상과 조세감면 폐지를 통해 수입 증액
아일랜드	-13.0	4.3	114	‘12년에 조세 증액, 그 이후는 지출 제한을 통해 ‘12년까지 GDP의 1.7%, ‘13년은 0.5%, ‘14년은 0.1%로 적자 감축
이탈리아	-3.8	2.3	120	‘15년까지 기초재정수지 적자(primary budget deficit) 절반 감축, ‘20년까지 흑자 달성. 공공 채무 비율을 ‘21년부터 감소 추세로 바꿈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기본지출을 ‘14년까지 안정화하고 ‘15년까지 소비세를 10%로 인상
일본	-9.5	8.9	205	일반 정부 적자를 ‘12년에 GDP의 2.9%, ‘13년에 2.5%, ‘15년까지 1%로 감축
폴란드	-5.1	4.2	63	주로 지출 기반 건전화를 통해 명목 정부 부채를 ‘12년에 GDP의 4.5%, ‘13년에 0.5%로 축소
포르투갈	-4.2	5.9	118	‘13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 아래로 축소. 최근 도입된 재정 규율에 따르면 정부 채무를 ‘17년까지 GDP의 60%, ‘28년까지 50% 이하로 축소
슬로바키아	-4.8	4.0	47	재정적자를 ‘12년에 GDP의 5.3%, ‘13년에 3% 수준으로 축소
스페인	-8.5	5.0	75	근본적으로 지출 축소를 통해 ‘16-17년까지 경기조정 경상예산을 흑자로 하는 건전화 프로그램, ‘15-16년까지 공공부문순부채(PSND) 축소, 연금 등 재정지원 혜택 제한
영국	-8.4	4.5	98	특별한 중기 계획을 채택하지는 않음 최근 법에서 상당한 건전화를 규정하나 기각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	-9.7	5.1	103	행정부 ‘13년 예산안에서 ‘13년과 ‘14년에 GDP의 2%로 적자 감축, ‘18년까지 GDP의 2%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감축, ‘15년까지 GDP 대비 채무 비율 증가를 멈추도록 규정함(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건전화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의 공식적인 중기 재정 계획을 요약함.

국가 선정 기준은 (a)GDP 대비 채무 비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구조적 기초수지(underlying primary balance)가 2011년에 GDP의 4% 포인트 이상이거나 (b)총 정부 채무가 2011년에 GDP의 100%를 넘는 경우임

1. 단위 : 명목 GDP 대비 %

2. 2030년까지(일본은 2040년) 평균 구조적 기초수지 개선은 총 정부 GDP 대비 채무 비율 안정화를 위해 필요함. 2012-13년 건전화 규모는 단기 전망과 일치하며 그 이후는 매년 GDP의 0.5%(일본은 1%)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Table 4.5

- 국제저축률과 경상수지 불균형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임
 - (국제 저축률 감소 요인) 단기에는 생산갭 축소에 따른 민간 저축의 경기변동적 감소, 장기에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민간저축 감소가 발생
 - 기대수명, 인구부양비와 같은 인구통계적 변화는 OECD 국가들의 민간 저축률을 2030년까지 3~4%p 낮출 것으로 보임
 - 정부 채무 안정화에 요구되는 정부저축 증가는 2020년대 중반까지 민간저축 감소를 상쇄함
 - 중국, 인도 등 대규모의 비OECD 국가는 인구통계적 변화가 저축에 이질적인 영향을 미침
 - (국제 저축률 증가 요인) 대부분의 국가 저축률은 감소하는 반면 중국, 인도 등 저축률이 높은 국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글로벌 저축률은 2030년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 글로벌 저축에서 중국,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30%에서 2030년에 50%로 상승함
 - 다만 신흥국의 저축률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²³⁾
 - (경상수지 불균형)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다시 확대됨
 - (단기) 경상수지 불균형 확대는 국내수요 회복으로 인한 생산갭 축소 가정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 경기순환적 반응임
 - (장기) 인구고령화로 인해 저축률에 악영향을 주는 효과가 압도적임
- 장기적으로 비OECD 국가의 생활수준은 OECD 국가를 서서히 따라잡을 것임
 - 비OECD 국가들의 성장 속도는 OECD 국가를 넘어서고 생활수준의 격차가 좁혀질 것임
 - 기준 시나리오에서 OECD 국가의 실질 총 GDP 성장률은 2050년까지 매년 2%에 머무르는 반면 비OECD 국가들은 2020년까지 4~6%, 2040년까지 매년 2~3% 수

23) 저축률 추정에 사용하는 패널식이 일반적으로 저축 증가를 과소 추정하고 신흥국의 미래 저축률은 다른 추가적인 변화에 의해 바뀔 수 있음

준을 기록할 것임

- 2020년까지 중국이 가장 높은 성장률로 예상되지만 얼마 후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 인당 GDP 기준으로 측정한 부국과 빈국의 소득격차는 2011년에 비해 감소
 - 전망기간 동안 부유한 10개국의 인당 GDP는 2배로 증가하는 반면 최빈국 10개의 인당 GDP는 4배 이상으로 증가
- 향후 40년간 국가 순위, 국제 GDP 비중 등 경제의 상대적 규모에 큰 변화가 예상됨
- (PPP 기준) 중국은 2017년 가장 규모가 큰 경제가 되면서 미국을 추월하고 인도는 일본을 추월할 것임
 - (시장환율 기준) 2020년대 초에 중국은 미국을 추월하고 인도는 2020년 후반에 일본을 앞지름
- 생활수준의 수렴은 주로 효율성 향상(efficiency gains)에서 기인하며 추가적으로 인적자본도 영향을 미침
- (총요소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 성장의 주요 동력이며 비OECD 국가와 OECD국가 간의 생활수준 수렴의 주요 원인임
 - 초기 MFP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인도네시아, 중국, 동유럽)는 개발된 국가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음
 - 추격 속도는 교역 개방정도와 국내 경쟁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짐
 - (인적자본) 초기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인도, 터키, 중국, 포르투갈, 남아프리카)에서 1인당 GDP 성장률에 대한 인적자본의 기여도는 0.6% 포인트 더 높음
 - (물적자본) 기본 시나리오에서 잠재생산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않음
 - 자본집약도(capital intensity)는 이자율에 따라 달라짐
- 대부분 국가에서 인구통계적 요인이 성장을 저해함
- 인구고령화는 일반적으로 근로인구 비율을 낮추고 노동참여율을 떨어뜨려 1인당 성장률 추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일부 국가들은 2050년까지 근로 연령 인구 비중의 상당한 증가(인도, 남아프리카)나 노동 참여율의 상당한 증가(칠레, 에스토니아, 미국, 뉴질랜드)로 인한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을 경험함

- 인구의 순 이동(net migration)은 2050년까지 부양비(dependency ratio)의 증가를 평균 2%p 완화함

■ 강한 재정 정책과 구조정책은 경기 성장을 이끌고 국제 경상수지 불균형을 완화함(<표 46> 참고)

○ 대안적 시나리오는 OECD 국가가 채무 비율을 60% 이하로 낮추기 위해 기준 시나리오보다 더욱 신속하게 예산을 건전화하고, OECD 및 비OECD 국가가 더욱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하는 것임

○ 보다 강도 높은 구조·재정 개혁은 성장을 촉진할 것임

-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 시장 규제 개선은 물론 실업률 및 노동참여율 개선을 위한 조세격차(tax wedge) 축소가 가능함
- (생산 시장 자유화) 성장 수렴 속도를 높여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평균 7%의 GDP 상승을 가져옴
 - 상대적으로 엄격한 생산 시장 규제를 받고 있는 국가(비 OECD 국가, 터키, 슬로베니아, 그리스) 뿐만 아니라 구조 정책을 더욱 개혁할 여력이 큰 국가일수록 그 효과가 커짐
- (노동시장 개혁) 국가 간 활동 기대수명(active life expectancy) 차이 축소, 노동시장 참여 수렴 등 노동시장 개혁의 전반적인 효과는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평균적으로 GDP를 4%만큼 상승시킴
 - 이탈리아, 한국, 이스라엘이 노동 참여율 증가로부터 대규모 잠재 이득을 얻을 것임
- 게다가 비OECD 국가의 복지/금융 개혁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게 달성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신용가용성(GDP 대비)도 기준 시나리오에서 2050년에 달성할 수준을 2035년에 조기 달성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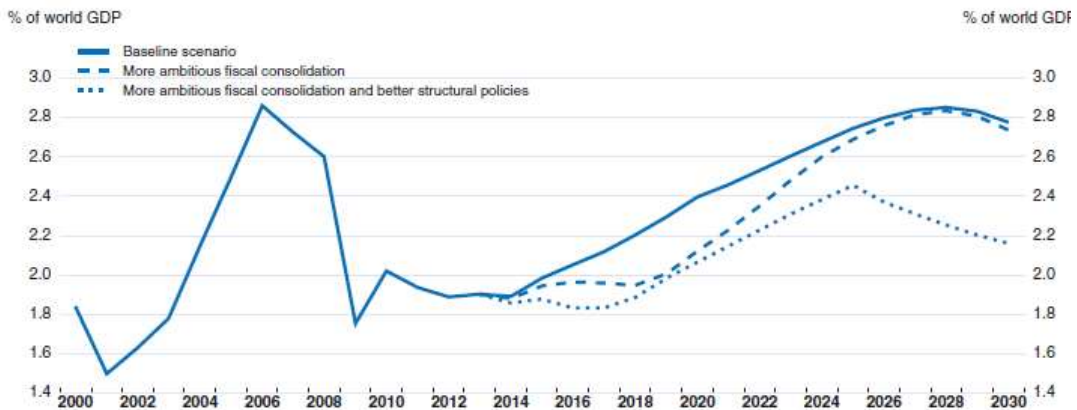
○ 구조개혁은 경상수지 불균형을 감소시킬 것임 ([그림3 참고])

- 이러한 개선은 주로 일부 비OECD 국가(특히 중국)의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낮

추는 것에서 기인함

- 이는 보다 급격한 복지와 금융 개혁의 결과로 예비적 저축이 더 빨리 감소하기 때문임
- 2020년 후반, 총 국제 불균형(total global imbalance)에 미치는 영향이 최고조가 되어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국제 GDP의 약 0.6%p를 낮추는 효과

[그림 3] 정책을 통한 국제 불균형¹의 감소



1. 경상수지 절대값의 합을 국제 GDP 비중으로 계산한 후 2로 나눔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Figure 4.7

<표 46> 시나리오별 요약¹⁾

	공통			(A)기준 시나리오			(B)강도 높은 건전화 및 구조 개혁		
	'00-'07	'10	'13	'20	'25	'30	'20	'25	'30
미국									
잠재 실질GDP성장률(%)	2.6	1.7	2.1	2.3	2.4	2.4	2.5	2.5	2.4
재정 수지	-2.6	-10.7	-6.5	-4.1	-4.1	-4.1	2.3	0.6	-0.9
총 정부 채무	62	98	111	115	116	116	90	70	62
실질 금리(%)	2.4	1.7	1.4	3.3	3.5	3.5	3.1	3.3	3.6
총 국가 저축	14.7	12.5	12.7	11.6	10.7	9.9	15.6	13.6	11.8
총 투자	19.7	15.8	17.0	16.6	16.7	16.5	17.4	17.2	16.1
경상수지	-4.9	-3.2	-4.3	-4.9	-5.9	-6.6	-1.7	-3.5	-4.3
일본									
잠재 실질GDP성장률(%)	0.7	0.6	0.8	1.3	1.4	1.4	1.3	1.6	1.8
재정 수지	-5.4	-8.4	-10.1	-6.9	-4.7	-4.6	0.4	7.9	10.9
총 정부 채무	157	193	223	257	263	264	228	187	121
실질 금리(%)	2.7	2.4	3.0	2.9	3.3	3.3	2.8	3.3	3.2
총 국가 저축	26.4	23.2	22.8	22.3	23.1	22.5	26.8	30.8	32.1
총 투자	23.1	19.8	21.0	22.7	23.8	23.8	23.6	25.0	26.3
경상수지	3.3	3.6	1.9	-0.3	-0.6	-1.1	3.2	5.9	5.8
유로지역									
잠재 실질GDP성장률(%)	1.9	1.0	1.3	1.8	1.7	1.5	2.2	2.0	1.8
재정 수지	-1.9	-6.2	-2.0	-2.1	-2.2	-2.1	1.8	0.4	-0.5
총 정부 채무	75	93	100	97	97	97	77	65	61
실질 금리(%)	2.4	2.3	3.2	2.9	2.6	2.4	2.9	3.0	3.2
총 국가 저축	21.6	19.4	20.5	17.4	16.2	14.8	20.0	18.0	15.9
총 투자	19.2	20.5	19.9	20.4	20.2	19.6	22.2	20.9	19.2
경상수지	0.3	0.4	1.6	-2.0	-2.9	-3.9	-0.9	-1.7	-2.2
OECD 총계									
잠재 실질GDP성장률(%)	2.2	1.5	1.9	2.2	2.2	2.1	2.4	2.4	2.3
재정 수지	-2.1	-7.5	-4.2	-3.2	-3.0	-2.9	1.6	1.3	0.7
총 정부 채무	74	99	109	116	117	116	96	78	66
실질 금리(%)	2.5	1.9	2.2	3.1	3.1	3.0	3.0	3.3	3.5
총 국가 저축	19.8	18.0	18.8	17.3	16.6	15.6	20.1	19.0	17.6
총 투자	21.0	18.6	19.5	19.2	20.1	18.6	20.2	20.5	18.4
경상수지	-1.2	-0.6	-0.9	-2.2	-2.7	-3.3	-0.2	-0.6	-1.0
중국									
잠재 실질GDP성장률(%)	10.0	10.2	9.5	6.8	5.1	4.0	7.1	5.4	4.3
총 국가 저축	44.6	51.8	50.1	42.9	38.3	33.2	37.9	29.6	27.2
총 투자	40.1	47.8	48.3	38.8	32.1	27.7	39.7	32.3	27.5
경상수지	4.6	4.0	1.7	4.1	6.2	5.5	-1.8	-2.6	-0.2
인도									
잠재 실질GDP성장률(%)	7.4	7.8	7.3	6.9	6.4	5.9	7.0	6.6	6.1
총 국가 저축	29.6	31.8	28.3	26.1	24.5	22.8	23.4	19.7	19.0
총 투자	29.1	34.3	31.2	30.4	29.1	27.5	30.6	29.1	27.3
경상수지	0.0	-3.2	-2.9	-4.2	-4.6	-4.7	-7.3	-9.4	-8.2
[잠재 실질 GDP 성장률(%)]									
OECD 국가	2.2	1.5	1.9	2.2	2.2	2.1	2.4	2.4	2.3
비 OECD 국가	6.8	7.5	7.3	5.8	4.8	4.1	6.1	5.1	4.4
세계	2.8	2.7	3.4	3.5	3.2	3.0	3.7	3.5	3.2

1. 단위: GDP 대비 비중(%)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12.5, Table 4.2, 4.6